

2024. 4. 1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서울 Vision 2030 펀드 총괄)

(첨단제조/스케일업 펀드)

(디지털대전환/첫걸음동행 펀드)

경제정책실 창조산업과

(창조산업 펀드)

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

(바이오 펀드)

서울경제진흥원

매수 : 5매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2133-4750
창업투자팀장	서정선	2133-4772
담 당 자	강다희	2133-4888
	김고은	2133-4757
창조산업정책팀장	이순영	2133-9210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2133-8731
바이오정책팀장	안명희	2133-8732
미래혁신단장	이태훈	2222-4270
투자지원팀장	김승규	508-6252

## 서울Vision2030 펀드 5조원 중 올해 절반 조성...첨단제조와 창조산업에 집중 투자

- 4년간 총 5조원 조성...’23년 1조 3천억원, ’24년 1조 1,750억원 조성해 규모 있는 투자
- 서울시 예산과 정부 민간 자원 결합해 첨단산업, 바이오, 창조산업 분야에 집중투자
-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 목표의 287%인 3조 7천억 조성해, 1,377개 기업에 투자
- 상반기에 운용사 선정, 출자약정...출자금 조기집행해 위축된 투자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

□ 양적완화 축소와 금융시장 내 고금리 기조로 3년 연속 벤처펀드 결성 금액과 신규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투자 냉각기 속에서도 혁신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서울 비전(Vision) 2030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첫해인 2023년에 1조 3천억 원을 조성해 투자를 진행 중이고, 올해도 1조 1,75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21년 역대 최대 금액인 17조 8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신규 결성된 후 ’23년에는 28.3% 감소하여 12조 8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

성되었고, 신규 투자금액은 '21년 15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후 '23년 10조 9천억원대로 31.5% 감소하였다.

\* '21~'23년 펀드결성액 : ('21) 17조 8,040억원 → ('22) 17조 6,603억원 → ('23) 12조 7,627억원

\* '21~'23년 신규벤처투자액 : ('21) 15조 9,371억원 → ('22) 12조 4,706억원 → ('23) 10조 9,133억원

□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4년간('23~'26년) 총 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 '24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계획 ]

(단위 : 억원)

분야	합계	디지털 대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	첫걸음동행	스케일업
조성목표	11,750	2,500	1,900	1,500	2,550	500	2,800
시출자액	810	150	100	150	150	60	200

□ 올해는 ▲K-컬처의 전 세계 확산과 유관산업 성장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첨단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첨단제조 분야 경쟁 심화 ▲챗(Chat) GPT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출연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 가속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6대 분야(디지털대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 첫걸음동행, 스케일업)를 중심으로 자금 투입을 집중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 업계 불황에도 서울시는 '23년에 1조 3,32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목표 1조 650억원 대비 125.2%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 존(2023년)	
디지털대전환	디지털 전환시대 선도기술 지원
창업지원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바이오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문화콘텐츠	K-콘텐츠 강국 선도할 유망기업 지원
첫걸음동행	시 정책사업 분야 투자, 소외기업 지원
스케일업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지원



변 경(2024년 ~)		
업종	디지털대전환	디지털 전환시대 선도기술 지원
	바이오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기업성장단계	첨단제조(신설)	기존 제품의 제조 방식 혁신, 첨단기술을 통한 신제품 생산 지원
	창조산업(확대)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유관분야 종합 지원
종료	첫걸음동행(재구조화)	창업 초기기업 또는 경영위기, 재창업 기업 지원
	스케일업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지원
총요		창업지원 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

□ 또한, 시는 지속되는 3고(고금리·고물가·고금리) 위기로 인해 위축된 벤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에 출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 구성에 대한 통합 출자공고부터 운용사 선정까지 오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기업에 신속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 ① 디지털대전환 펀드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바이오 펀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기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 ③ 첨단제조 펀드 : 제조공정 혁신 또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제조관련 솔루션 제공, 지식재산권 판매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제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창조산업 펀드 :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지식기반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의 생산, 유통, 활용, 기반 기술 개발 등 창조산업 전 가치사슬에 걸친 유망 기업에 투자한다.
- ⑤ 첫걸음동행 펀드 :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 안착 지원,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⑥ 스케일업 펀드 : 대·중견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술실증(PoC) 등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또는 완료)하는 스타트업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망 기업에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 이미 시는 민간과 함께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19~’22년)를 당초 목표 조성 금액의 287% 수준인 3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1,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고, ’24년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펀드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펀드 조성 노하우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앞으로도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21년에 창업지원 펀드의 투자를 받은 시니어케어 스타트업 케어링은 ’23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3년 12월에는 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년에 스마트시티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트래블월렛은 ’23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약 9배 증가했고 ’20년 서울시 최초 투자 시점 대비 고용이 약 5배 증가했다. 안정적으로 확보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투자 혹은 기를 견디고 기업의 역량을 발휘한 결과이다.

- 한편, 서울시는 정책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투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분야별로 서울시가 제시한 목적투자 대상 시업에 대해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 투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투자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운용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지원운용사는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면평가를 통해 각 분야 운용사를 선정한다. 2차 대면평가지 투자·회수 등 펀드 운용전략, 운용팀의 전문성, 운용사만의 차별적 요소 등을 평가한다.
  - ‘서울 Vision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http://www.seoul.go.kr))과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sba.seoul.kr](http://www.sba.seoul.kr)) 등을 통해 4월 24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방향은 벤처 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미래첨단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을 키워내는 재원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